

	<h1>경상북도 보도자료</h1>	2016. 8. 30(화)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상북도, '행복씨앗 인성교육' 프로젝트 추진 9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서 '어르신+유아' 함께 놀이 통해 인성교육	여성가족 정책관실	 사진별첨
② 경상북도-베트남 국립호치민대학교, 새마을운동 연구소 개소 한국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한베트남 개발 협력강화	새마을봉사과	 사진별첨
③ 경북도, 대구공항 통합이전 정부 실무협의 가져 앞으로 통합이전 절차에 경북도 참여와 역할 중요	공항추진 기획단	
④ 경북도, 중소기업 미래먹거리 개발 지원 틈새시장 공략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지원 6개 업체 선정 기업성장 불씨	기업노사지원과	사진별첨
⑤ 2016 경상북도 평생교육컨퍼런스 성황리 개최 23개 시군 마을평생교육지도자 네트워크 구축과 학습정보 교류의 장	새마을봉사과	사진별첨
⑥ 경북도, 여성능력개발 '2016 경북 여성아카데미' 개강! 6개과정, 590명의 여성지도자 참여	여성가족 정책관실	사진별첨
⑦ 캄보디아에서 경북 선진농업기술 배우러 왔어요 캄보디아 농업연수단에 선진농업기술 연수	FTA농식품 유통대책단	 사진별첨
⑧ '화재예방의 주역 소방특별조사자' 직무역량 강화 소방시설 전문지식 습득으로 현장 점검실무능력 배양 -	대응예방과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16.8.30(화)】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작성자	정책관	이원경			
			담당	박세은	주무관	김성훈	
		연락처	054-880-4543	C.P	***-****-3570		

경상북도, '행복씨앗 인성교육' 프로젝트 추진

- 9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서 '어르신+유아' 함께 놀이 통해 인성교육 -
- 60세 이상 인성교육강사 155명 선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창출 -
- 누리과정 만3~5세 유아 2만 6천명대상, 강사비 2시간 6만원지원 -

경상북도는 9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서 어르신과 유아가 함께 놀이를 통해 인성교육을 하는 '행복씨앗 인성교육' 프로젝트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0일 오후 2시 도청 동락관에서 행복씨앗 인성교육 프로젝트 성공 다짐을 위한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도 어린이집연합회장, 인성교육 강사, 어린이집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자문위원, 관련학과교수, 공무원 등 800명 참석한 가운데 1부 축하공연, 경과보고, 강사 사례발표, 다짐선언에 이어 2부 특강, 지침전달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유아교육 최적기인 3~5세 유아들이 퇴직한 분야별 어르신 전문가와 놀이를 통해, 효·나눔·질서·존중·배려·협력심 등 인성덕목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과 전문가로 자문위원회(15명) 구성, 시·군을 통한 인성교육 강사를 선발했으며, 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강사 교육 실시 등 유관기관 협력에 힘써 왔다.

특히, 도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인성교육 특별활동 운영 지침' 마련하고 시군에 시달하는 등 사업수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인성교육 특별활동 대상 어린이집 명시(누리과정 어린이집), 운영시간, 모니터링실시, 강사(성범죄조회·건강검진) 등 세부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공립, 법인,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은 필수적 운영 어린이집으로 명시했다.

먼저 강사 선발은 60세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농어업·산림, 기타 분야 전문가를 어린이집 연합회,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공개 모집(4~5월)했으며,

선발된 강사 155명의 자질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에 배치되기 전 유아 이해교육, 강의 실습 등 권역별 강사교육(7.19~21)을 총 3회 실시했다.

〈강사진 활동 분야-155명〉

- ▶ 동화구연(63명), 인성예절(31명), 다도예절(22명), 한자(9명), 숲해설사(5명)
- ▶ 자연염색(5명), 국악(2명), 동요(3명), 민요(3명), 사자성어(3명)
- ▶ 각 1명 - 농업 도자기 손뜨개 시조창 웃음치료 전통놀이 종이접기 전통악기 악기

또한, 9월에는 강사들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어린이집과 강사진들과의 멘토멘티를 결연하여 시범강의를 8회(8시간 이상) 실시한다.

인성교육 참여대상 어린이집은 누리과정(만3~5세) 운영하고 있는 950개소, 유아 2만 6천여명 대상으로, 집합교육, 야외활동, 체험활동 등을 현장 맞춤형으로 실시하게 된다.

인성강사 채용은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강사와 계약 후, 월1~4회, 1회당 2시간 내외로 유아 24명 단위로 동화구연, 인성예절, 동요, 웃음치료, 사자성어, 민요 등 특별활동 교육을 한다.

이 사업은 누리과정 특별활동비로 강사비를 지출하도록 하여 추가 예산 부담 없이 어르신들에게 보람된 일자리 제공할 수 있어 향후 전국적 확대가 기대된다.

인성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료는 2시간 최대 6만원까지 지원되며, 매년 2회 인성교육 강사를 추가 발굴, 기존 강사들과 경쟁 체계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바른 품성을 기르고, 자연스럽게 경로효친사상 고취, 퇴직 어르신 자존감 고취 등 1석 2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발대식에서 “인성교육이 성공하려면 지역사회, 학부모, 어린이집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행복씨앗 인성교육 프로젝트’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좋은 품성을 담아주어 경북의 미래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며,

“앞으로, 인성교육의 체계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발굴 육성하고, 점검 및 교육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업그레이드 시켜 대한민국의 뿌리모델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붙임 행사계획, 사진자료

「어린이집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경상북도 행복씨앗 인성교육 프로젝트 발대식

- ◆ 경제성장으로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절, 가치관 등의 교육은 줄어들고 있음
- ◆ 건강한 사회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유아 대상 조기인성 교육 실시
- 전국최초 60세이상 어르신 유아 인성교육 특별활동 프로그램 -

■ 행사개요

- 일 시 : 2016. 8. 30(화) 14:00
- 장 소 : 경북도청 동락관
- 참 석 : 800명 정도
 - 인성교육 강사 155명, 인성교육 추진 자문위원 17명
 - 필수운영 어린이집 원장 375명(국공립 135, 법인 83, 직장 43, 공공형 114개소)
 -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원장, 보육정책위원,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경과보고, 강사진 양성과정 설명 및 사례발표, 포퍼먼스 등

■ 시간계획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1부	13:45 ~ 14:00	15' ○ 식전공연	사회 : 이도현
	14:00 ~ 14:05	5' ○ 개회 및 내빈소개	
	14:05 ~ 14:10	5' ○ 경과보고	영상
	14:10 ~ 14:15	5' ○ 다짐선언서 낭독	
	14:15 ~ 14:25	10' ○ 인사말씀	도지사, 의장 등
	14:25 ~ 14:30	5' ○ 인성교육 강사진 양성과정 설명	
	14:30 ~ 14:40	10' ○ 인성교육 사례발표	
	14:40 ~ 14:50	10' ○ 축하공연, 퍼포먼스	
2부	14:50 ~ 15:00	10' ○ 기념촬영 및 폐회	
	15:00 ~ 15:40	40' ○ 특 강	
	15:50 ~ 16:00	10' ○ 지침전달 교육	

경상북도 행복씨앗 인성교육 프로젝트 추진

- ◆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기 인성교육 필요성이 대두
- ◆ 어린이집 유아 대상으로 바른 인성 형성을 위해 인성교육 실시
- 전국최초 60세이상 어르신 유아 인성교육 특별활동 프로그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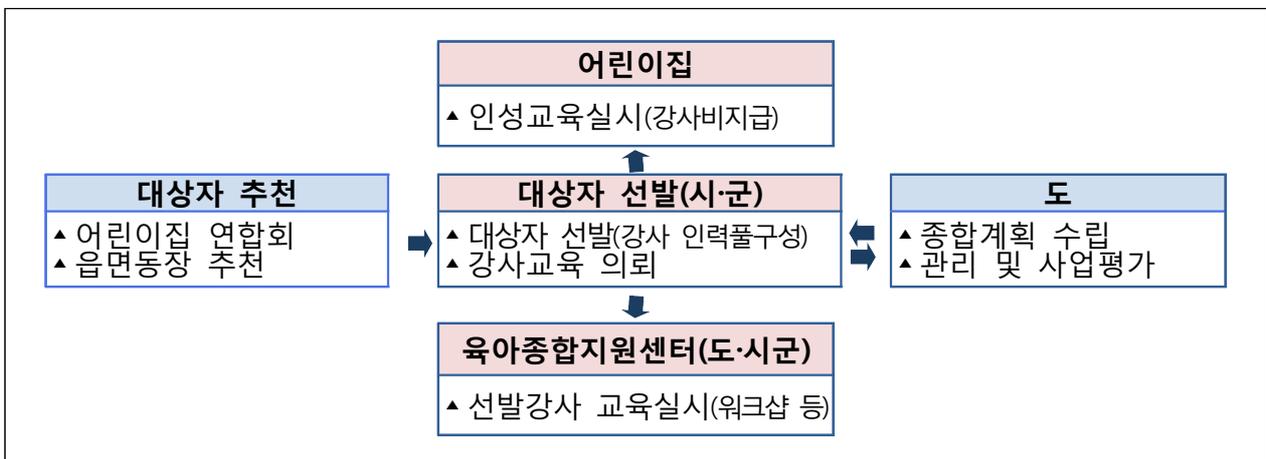
추진배경

- 경제성장으로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절, 가치관 등의 인성교육은 줄어들고 있음
-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조기 인성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임
- 특히, 정부에서도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2015.7.21) 역점시책으로 추진

추진내용

- 추진방법 : 퇴직한 어르신 전문가+유아 함께 놀이 통해 인성교육실시
- 교육대상 : 도내 어린이집 아동 만3~5세 아동(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 필수 운영 어린이집(377개소) :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어린이집
- 교육내용 : 문화예술·예절, 교육, 체험, 농어업·산림 분야 등
- 강 사 진 : 60세 이상 155명(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활용)
 - 강사활동 : 매월 1~4회, 1~2시간 / 어린이집 1개소(여러 어린이집 및 타시군 활동가능)
- 예 산 : 어린이집에서 강사비 지급(누리과정 인성교육비, 강사비 3~6만원)

사업 체계도



추진경과

- '16. 3월 : 어린이집 아동인성교육 추진 종합대책 수립(전국최초)
- '16. 4월 : 아동인성교육자문위원회 개최(17명), 시군 담당 회의(2회)
- '16. 4. 18 : 시군 부단체장 회의 시 인성교육 홍보
- '16. 4~6월 : 인성교육 강사진 선발(155명)
- '16. 5월 : 인성교육 추진 실무위원 구성(11명, 강사교재 개발 등)
- '16. 7월 : 강사진 양성교육 권역별 교육(7.19 안동, 7.20 영천, 7.21 구미)

〈인성 강사진 활동 분야-155명〉

- ▶ 동화구연(63명), 인성예절(31명), 다도예절(22명), 한자(9명), 숲해설사(5명)
- ▶ 자연염색(5명), 국악(2명), 동요(3명), 민요(3명), 사자성어(3명)
- ▶ 각 1명 - 농업 도자기 손뜨개, 시조창 웃음치료, 전통놀이 종이접기, 전통악기 악기

- '16. 8월 : 행복씨앗 인성교육 프로젝트로 사업명 확정(자문위원회)
- '16. 8. 10 : 강사진 양성교육 후 평가 보고회 개최(자문위원 도육아종합지원센터)
- '16. 8. 11 : 행복씨앗 인성교육 추진계획 설명(어린이집원장 500명, 동락관)
- '16. 8. 12 : 인성교육강사 실습 대상 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계획 통보, 행복씨앗 인성교육 프로젝트 세부 운영지침 마련
- '16. 8. 30 : 아동인성교육 강사진 발대식(도청 동락관)

향후계획

- '16. 9. 1 : 인성교육 실시
- '17. 3~9월 : 인성교육 강사진 추가 선발(2회, 150명)
- '17. 9월 ~ : 인성교육 실시 평가보고서 작성(시행 1년 후)

기대효과

- 아이들의 올바른 품성을 기르고 자연스럽게 경로효친사상 고취
- 퇴직 어르신 자존감 향상 및 일자리 제공으로 1석 2조 효과 거양
- 경북도 인성교육 뿌리 모델 제공으로 전국 확산 기대

 경상북도	보도자료 【16.8.30(화)】	담당부서	새마을봉사과				
		작성자	과장	이제명			
			담당	이승택	주무관	황보경화	
연락처	054-880-2881	C.P					

-*-2248

경상북도-베트남 국립호치민대학교 새마을운동 연구소 개소

- 한국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한베트남 개발 협력강화 -

경상북도는 30일 베트남 국립호치민대학교와 손잡고 베트남과 메콩 델타지역에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거점역할을 할 ‘베트남 새마을운동 연구소’를 개소했다.

이는 작년에 개소한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교와 세네갈 가스통베스통 베르제 대학교의 연구소에 이어 세 번째 연구소로 베트남 정부의 신농촌 개발사업과 부합되어 양국간 실질 협력강화와 더불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새마을운동 연구소’는 현지 중앙, 지방정부, 대학교, 연구기관, 마을간의 통합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현지 공무원과 주민, 대학생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교육과 기관간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학술대회를 열어 관련 자료를 발간하는 등 현지 새마을세계화사업 확산의 전진 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응우옌 수언 폭 베트남 총리는 최근 제11차 아시아 유럽정상회의 (ASEM) 중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새마을 운동을 “행복의 마을”로 칭하며, 성공리에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새마을운동 관련 협력강화를 희망한다며 새마을운동 예찬론을 펼쳤다.

이는 도가 지난 10여 년간 ‘새마을운동의 작은 희망 씨앗’을 베트남 현지에 뿌리며 정부와 마을 공동체의 체질을 개선하고 가난을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둔 결과로 평가된다.

도는 대한민국의 대표 개발협력 브랜드인 새마을운동의 종주도답게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자매결연 마을 중심의 자립형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다.

베트남 다이떠군 룡반 마을은 새마을운동이 도입된 후 빈곤율이 23%에서 현재 0.02%로 낮아졌고, 소득이 17% 증가한 것이 그 예이다.

또한, 2009년부터는 UN과 함께 한국형 밀레니엄빌리지를 조성하고 2013년부터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새마을시범마을 사업을 전개하여 우리나라 대외 개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2015년부터 대륙별 새마을운동 거점센터를 개설하여 새마을운동의 현지화 노력을 가속화하는 등 창조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우병윤 경상북도 정무실장은 이날 개소식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사업을 자국형 모델로 잘 활용하고 있는 베트남이 이번 새마을운동 연구소 개소를 통해 더욱 발전되고 한-베트남간 연구개발, 인적교류, 문화협력 등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Mr. 새마을”로 불리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의 개발도상국 현지에서의 뿌리내림은 한국에 대한 철저한 신뢰성을 보여 것으로 새마을운동세계화사업은 친한국문화(K-Culture) 트렌드를 선도하고 수출시장 교두보 확보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베트남 호찌민지역 최고의 대학인 국립호찌민대학에 세워지는 새마을운동 연구소는 양국공동의 대표적 개발협력센터로서 농촌개발 전략 및 국가발전, 개발효용의 극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도는, 국내외 유관 연구기관, NGO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새마을운동 이론 확산과 현지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지를 확대하고,

시군 새마을세계화 사업 및 해외 새마을운동 연수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 학술 연구 및 현장사업 추진, 관련 자료 축적 등 공동의 노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붙임 사진자료

베트남 새마을운동 연구소 개소식

행사개요

- 일 시 : 2016. 8. 30(화) 10:00~12:00
- 장 소 : 호치민대학교 2캠퍼스 본관 컨퍼런스홀
- 참가인원 : 100명 정도
 - 정무실장님, 재단 대표이사 외 5명
 - 호치민 대학 인문사회 학장, 국제협력실장 등 20명
 - 주호치민 한국영사관 총영사 및 직원 5명
 - 대구경북경제인협회장 및 회원 등 15명
- 주요내용 : 내빈소개, 현판제막, 연구소 라운딩 등

시간계획

시간 계획		주요 내용	비 고
10:00~10:15	15	· 개회 및 내빈소개	
10:15~11:00	45	· 환영사 : 인문사회 학장 · 인사말씀 : 경상북도 정무실장 · 개소사 :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 · 축 사 : 주호치민 한국총영사	
11:00~11:05	5	· 기념촬영	
11:05~11:20	15	· 현판제막	
11:20~11:50	30	· 연구소 방문	주요인사
11:50~11:55	5	· 기념촬영	
11:55~12:00	5	· 이동 및 폐식	

개 요

- 장 소 : 베트남 국립호치민大 2캠퍼스 본관
- 규 모 : 약 100㎡ (2실)
 - ※ 베트남 새마을운동연구소, 재단 현지사무소
- 역할분담
 - 도(재단) : 연구, 교육, 행사, 출판, 시범마을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 호치민大 : 상주 인력 인건비, 연구소 유지비용 등
- 사업내용
 -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베트남 및 메콩델타 지역개발연구
 - 시범마을조성 확대를 위한 베트남 농촌사회 개발 연구

활 용

- 새마을운동 및 베트남 신농촌개발정책 비교 연구, 학술행사
- 메콩 델타 및 호치민 농민공무원교육, 새마을시범마을 주민공무원 연수
- 베트남 새마을세계화사업 확대방안 연구 및 관련 자료 발간 등

연구소 전경

제2캠퍼스 본관



연구소 예정 공간

 경상북도	보도자료 【16.8.30(화)】	담당부서	공항추진기획단				
		작성자	단장	이상기			
			사무관	윤희열	담당자	유명근	
		연락처	054-880-8831	CP			

-*-551

경북도, 대구공항 통합이전 정부 실무협의 가져

- 앞으로 통합이전 절차에 경북도 참여와 역할 중요 -
- 정부차원 경북입장 반영과 현장소통 확대 약속 -

경상북도는 지난 26일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이 주재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실무회의에 참석하여 그간 정부TF 운영현황을 파악·협의하고 국방부가 추진 중인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절차 등과 관련하여 향후 도의 입장과 지역 및 도민의견 수렴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통합공항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 도의회, 언론 등의 여론을 전달하면서 이전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요청과 정부차원의 현장 소통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과 공정한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는 앞으로 경북도와 적극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방부가 추진하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에 경북의 참여 협의와 함께 정부차원의 공항이전 자료를 제공하여 이전사업의 효과 뿐 만 아니라 소음피해 등 부정적인 부분도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경북지역의 입장과 공항이전 문제의 중요성, 문제점 등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지자체, 도의회 등 어디든 필요하다면 방문 등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의 입장과 발전전략 측면에서 공항이전 문제를 신중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통합이전에 따른 효과는 물론

소음피해,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각종 국책사업에 따른 이전 지역 주민지원사업 사례 등을 조사 연구하여 정부의 통합공항 이전사업에 적극 대응 할 계획이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대구·경북의 상생 발전 차원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조하는 한편 시군과 도민 의견을 수렴한 전략과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6.8.30(화)】	담당부서	일자리민생본부 기업노사지원과				
		작성 자	과 장	유 수 호			
			사무관	김제율	주무관	박정호	
		연 락 처	054-880-2683	C·P			

*

3775

경북도, 중소기업 미래먹거리 개발 지원 틈새시장 공략

-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지원 6개 업체 선정 기업성장 불씨 -

경상북도는 30일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지원 사업에 도내 6개 업체를 선정 발표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이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화가 되지 않고 있는 기술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 분야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응모가 가능하며, 개발 가능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해 기업 당 최대 60백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30개 업체가 신청해 경쟁률이 매우 높았으며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사업화가 되면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6개 기업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6개 업체는 건강, 에너지, 환경 등의 경제 흐름이 잘 반영된 기술로, 개발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장상길 경상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정부나 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업들을 발굴·지원하여 우량 기업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 선정현황, 사진자료

[붙임] 경상북도 혁신기술개발지원사업 선정내용

업체명	주소	주생산품	과제명
유메드시스	경주	의료용 초음파 프로브, 의료기기 부품, 디지털 기기부품	고집속 초음파의 케비테이션을 이용한 지방파괴 기술 및 제품 개발
(주)코러싱	구미	전원변환장치, 무선통신 이력조회 모듈	X-band 대역의 옥내이동체 360° 감지용 마이크로웨이브 센서 개발과 이를 활용한 조명/기기제어용 에너지 절전 센서 개발
(주)세교하이텍	영천	자동차부품, 금형 등	자동차용 초경량(20%) 하이드로포밍 적용 인렛콘 국산화 개발
(주)코레쉬텍	성주	티백용 메쉬 및 티백 가공 장비, 전자제품용 필터메쉬	Design Tag 기술을 적용한 Long String 삼각티백 필터개발
산들정보통신(주)	경산	스마트 통합유류 측정 솔루션	IoT기반의 병상정보(신체정보, 욕창감지, 낙상감지) 수집장치 및 서비스플랫폼 개발
(주)형제인터네셔널	칠곡	산업용 특수장갑	실리콘수지를 적용한 코팅 전처리 기술개발과 내절단성 안전장갑 개발

 경상북도	보도자료 【16.8.30(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				
		작성자	과장	이제명			
			담당	오준엽	주무관	김남엽	
연락처	054-880-2886	C·P					

-*-3

991

2016 경상북도 평생교육컨퍼런스 성황리 개최

- 23개 시군 마을평생교육지도자 네트워크 구축과 학습정보 교류의 장 -

경상북도는 30일 오전 11시 경주시 켄싱턴리조트에서 도, 시·군 평생교육 담당공무원과 시·군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회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경상북도 마을평생교육지도자 평생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경상북도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2010년 창립된 전국 최초의 도 단위 평생교육 조직체로 23개 시군 1,8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평생교육 활성화와 지역 간 정보교류를 통한 평생학습 사회 구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내 마을평생교육 확산을 위해 헌신한 문경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김영순씨를 비롯한 유공자 6명에게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표창을 수여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구미시협의회와 영천시협의회의 마을평생교육 우수사례발표를 통해 지역 평생학습의 성과와 생생한 평생교육 현장의 성과를 공유·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일원에서 열리는 ‘제4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에 대한 경주시 관계자의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 참여기관의 많은 협조 등 성공적인 박람회 추진 결의도 다졌다.

정만복 경상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는 ‘마을 평생교육 리더 양성과정’을 수료한 시·군 1,8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주민중심 자율평생학습 조직이다”며,

“앞으로 도내 전 지역에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마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으로, 마을단위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평생학습 리더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행사계획, 사진자료

경상북도 마을평생교육지도자 평생교육 컨퍼런스 개최

I 행사개요

- 기 간 : '16. 8. 30.(화) 11:00
- 장 소 : 경주 켄싱턴리조트 1층 컨벤션홀
- 주 관 : 경상북도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회장 안술용)
- 참석인원 : 600명 정도(시군 협의회원, 담당 공무원 등)
 - ※ 참석내빈 - 자치행정국장, 경주시의장, 道 평생교육진흥원장 등
- 주요내용
 - 우수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시상
 - 마을평생교육 관련 특강, 지역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등

II 행사일정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식전 행사	10:30~10:50	20'	등 록	
	10:50~11:00	10'	동아리 발표 1부	
제1부	11:00~11:05	5'	개 회 (내빈소개, 국민의례)	사무국장
	11:05~11:10	5'	지도자협의회기 입장, 행동강령 낭독	지도자 대표
	11:10~11:20	10'	시상 □ 경상북도지사상(3점) □ 경상북도의회 의장상(3점) □ 도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장상(5점) □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장상(3점)	
	11:20~11:24	4'	대 회 사	경북마을평생교육 지도자협의회 안술용 회장
	11:24~11:28	4'	환 영 사	
	11:28~11:32	4'	격 려 사	
	11:32~11:36	4'	축 사	
	11:36~11:40	4'	축 사	

	11:40~11:44	4'	축 사	경상북도평생교육 진흥원장
	11:44~12:10	26'	마을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	
	12:10~13:10	60'	오 찬	컨싱턴리조트
제2부	13:10~13:30	20'	동아리 발표 2부	
	13:30~13:50	20'	제4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소개	
	13:50~14:40	50'	특 강	이점원 교수 (전 동국대교수)
	14:40~15:00	20'	전체 기념촬영 및 폐회	

 경상북도	보도자료 【16.8.30(화)】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작성자	정책관	이원경			
			사무관	장철웅	주무관	권정은	
연락처	054-880-4537	C·P					

-*-783

2 경북도, 여성능력개발 '2016 경북 여성아카데미' 개강!

- 6개과정, 590명의 여성지도자 참여 -

경상북도는 30일부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다양한 역할수행을 위해 지역여성들을 대상으로 역량개발과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인 '2016 경북 여성아카데미' 를 개강한다고 밝혔다.

'2016 경북 여성아카데미' 는 도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강순옥)주관하여 경북 여성의 역량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생활도자기 만들기를 비롯한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들이 배워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총 6개 과정 590명이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분야별 전문가의 강연과 체험실습으로 진행된다.

올해 교육은 지역대표 한방화장품 제조업체인 '경산 하늘호수(대표 서미자)' 체험장에서 여성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한방화장품 만들기를 시작으로,

생활도자기 만들기, 공간활용 수납정리 교육, 신라 한방약선음식 체험, 야생화를 이용한 전등갓 만들기, 건강한 삶을 위한 힐링 명상교육 과정 등 6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원경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다양한 현장체험 교육을 통해 여성만이 가진 자질을 개발·활용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재정립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도울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붙임 행사계획, 사진자료

여성의 역량개발과 정체성 함양을 위한 2016년 경북 여성 아카데미 개최

■ 개 요

- 기간/장소 : 2016. 8 ~ 11월초 / 6개소(도내 5, 도외 1)
- 교육인원 : 6개 과정 610명 정도
- 교육내용 : 특강, 여성문화 체험 및 실습, 힐링탐방
- 예 산 액 : 3,300만원(도비 3,000, 도여협 300)
- 주최/주관 : 경상북도/경북여성단체협의회

■ 교육 세부일정

일정 및 장소		인원 (명)	교육 내용 (강의 및 체험)	강 사	비 고
1기 (경산)	8. 30(화) 14:00 ~ 17:00 (하늘호수)	40	한방화장품만들기	정 재 영 (하늘호수 강사)	
2기 (김천)	9. 8(목) 14:00 ~ 17:00 (마고촌)	80	생활도자기 만들기	강 종 말 (도예연구소 소장)	
3기 (안동)	9. 21(수) 14:00 ~ 17:00 (안동 세계물포럼기념센터)	200	수납과정교육	구 현 미 < 한국정리수납협회 덤인 13호 대구수성점 지점장>	
4기 (경주)	10. 6(목) 14:00 ~ 17:00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	30	신라한방약선음식 설명 및 실습	차 은 정 [경주시 신라전통 음식명인 지정(제3호)]	
5기 (군위)	10. 13(목) 14:00 ~ 17:00 (군위농업기술센터)	200	전등갓만들기 체험	오 분 이 (프레스플라워협회 화다연중앙회장)	
6기 (강원도 홍천)	11. 7 ~ 8 (월~화) (힐리언스선마을)	60	건강한 삶을 위한 힐링 명상교육	이 시 형 힐리언스 선마을촌장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경상북도	보도자료 【16.8.30(화)】	담당부서	FTA농식품유통대책단			
		작성자	과장	임현성		
			사무관	임주승	담당자	김정숙
연락처	053-880-3334	CP				

_

*-243

캄보디아에서 경북 선진농업기술 배우러 왔어요

- 캄보디아 농업연수단에 선진농업기술 연수 -

경상북도는 30일 선진농업 기술연수를 위해 방문한 캄보디아 농업연수단을 초청해 도의 농업현황과 시책을 소개하고, 경북도와 캄보디아간의 농업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캄보디아 농업연수단은 농업수산물식품부 썸낭 께우모닌 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농업인 등 9명으로,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벼재배 시험장과 쌀 가공공장 등 주로 벼 생산 및 가공현장 위주의 연수를 실시한다.

특히,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농업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측의 요청에 의해 문경 오미자 재배농장과 가공공장을 방문하여 수확과 가공 체험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화 가능성도 타진한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의 1.8배 면적과 인구 15백만명으로 비교적 넓은 국토와 적은 인구를 보유한 농업 발전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젓줄 메콩강에서 생산되는 쌀을 비롯한 옥수수, 타피오카, 사탕수수, 후추 등의 생산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썸낭 께우모닌 연수단장은 “경북은 벼 재배 기술이 뛰어나고 쌀 가공 제품도 무척 다양하다” 며, “이번 연수를 통해 캄보디아의 주력 산업인 쌀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다양성 강화를 위한 기술 습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면서 연수기회를 제공한 경북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농업관계자 초청 선진농업기술 연수는 도 시책 국제화 사업인 해외농업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 몽골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23명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 한 바 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캄보디아는 2006양코르-경주세계 문화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문화, 농업분야 협력 등 좋은 인연을 맺고 있는 친숙한 나라다” 며,

“이번 연수를 통해 경북의 새마을 운동과 농업기술이 캄보디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연관산업의 활발한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붙임 방문계획, 사진자료

2016 캄보디아 농업연수단 道방문 계획

❖ 경북의 선진 농업 기술 연수를 통해 경북도-캄보디아 양국의 교류 협력증진 및 경북 농업의 외연 확대

※ 연수기간 : 2016. 8. 29 ~ 9. 4(6박 7일간), 방문인원 9명

□ 방문 개요

- 일 시 : 2016. 8. 30(화) 10:00 ~ 13:30 ※ 청사견학 10:40
- 장 소 : 호국실(209호)
- 참 석 자 : 20명 정도
 - 농축산유통국장, 농업기술원장, 국제개발연구원장, 연수단 등
 - ※ 연수단 : 캄보디아 농업수산물부 부국장 등 농업관계관 9명
- 주요내용 : 경북농정 소개, 기념품 교환, 청사 견학, 오찬 등

□ 시간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05'	참석자 소개	FTA대책담당
10:05~10:10	05'	인사말씀	농축산유통국장(통역)
10:10~10:15	05'	연수단 대표 인사	연수단장(통역)
10:15~10:30	15'	도 농정현황 설명	FTA대책담당
10:30~10:35	05'	기념품 전달	
10:35~10:40	05'	방문 기념촬영	회의실, 본관 전정
10:40~11:30	40'	청사견학	해설사 안내
11:30~12:00	30'	이동(도청→예미정)	
12:00~13:30	90'	환영오찬	안동종가음식체험 (예미정 ☎054-853-2000)

□ 연수단 현황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성별	비고
행정	농업수산물식품부	부국장	Sameng Keomonine (쩨낭 깨우모닌)	남	단장
	참봉참주 농업청	국장	Kim Savoeun (김 싸워은)	남	
	농업수산물식품부 농경제사무소	차장	Roath Mullika (로앗 몰리카)	여	
	농업수산물식품부 농촌개발팀	팀장	Say Tom (싸이 톰)	남	
학계	캠봉참대학 농업경제학과	학장	Leu Kimheng (르 김헤잉)	남	
농업인	캄보디아 농업 연구개발센터	유기농업인	Keam Makarady (키엄 마카라디)	남	
	캄보디아 농업 연구개발센터	유기농업인	Lak Youssey (락 유싸이)	남	
	캠봉참주 농촌지도자	농업인	Chhem Tha (츄 타)	남	
	프놈펜주 농촌지도자	농업인	Nget Raby (응아엣 라비)	남	

□ 연수일정(안)

일자별	주요내용	비고
8. 29(월)	○ 입국(인천공항) → 대구 도착(호텔 에어포트)	인천 대구
8. 30(화)	○ 경북도청 방문 ○ 안동하회마을, 안동농협 더햇식품사업소, 안동구시장	안동
8. 31(수)	○ 청도 새마을발상지, 성수월마을, 와인터널 견학	청도
9. 01(목)	○ 벼,옥수수 재배 실험실, 미곡종합처리장 견학 ○ 농기계임대사업장, 마늘 6차산업 사업단 방문	군위 의성
9. 02(금)	○ 오미자 재배농가 및 가동업체 견학(체험) ○ 예천 용궁쌀 가공공장 견학 등	문경 예천
9. 03(토)	○ 한국전통문화체험(팔공산 동화사, 대구약령시)	대구
9. 04(일)	○ 수료식, 출발(대구) → 출국(인천공항)	대구 인천

 경상북도	보도자료 【16.8.30(화)】	담당부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작성자	과장	윤영돈			
			사무관	이창수	주무관	황길석	
연락처	054-880-6240	CP					

‘화재예방의 주역 소방특별조사자’ 직무역량 강화

- 소방⁴⁴시설 전문지식 습득으로 현장 점검실무능력 배양 -

경상북도는 30일부터 2일간 경북소방학교에서 도내 17개 소방서 소방특별조사,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 특별조사요원은 일선 현장에서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화재 등 재난 발생 위험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 점검·진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교육은 인사이동으로 새로 소방특별조사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게 된 소방특별조사요원과 소방 건축허가 등의 민원업무 담당자 45명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

교육은 신제품·신기술 도입 등으로 급변하는 소방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전문지식 습득을 중점 목표로 삼았으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을 참여시켜 점검실무 능력을 높이고 직무능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날로 늘어나는 고층건축물과 전기·통신실 등 대형·특수시설 화재에 대비해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 가스계소화설비의 기능습득을 비롯한 건축분야와 상호 연동된 소방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방법을 익히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시설을 제어하는 구체적인 요령을 맞춤형 실습교육으로 진행해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우재봉 경북소방본부장은 앞으로 “소방특별조사자의 현장 점검실무 능력을 더욱더 강화해 선제적 화재예방 행정으로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